

## 전국한우협회의 역할과 기능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전국한우협회는 1999년 9월14일 창립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중 한우농가의 수가 60% 이상을 넘어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 중 가장 늦게 출범한 것입니다.

한우농가의 조직화가 양돈농가, 양계농가에 비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업화의 속도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한우농가 호당 평균사육두수가 5두에도 못 미쳐 한우사육은 부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30만명을 넘어서는 한우농가를 조직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한우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입니다. 정부는 한우산업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감안해, 한우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한우농가의 사회적·경제적 불만이 표출되는 상황이 오면 이에 걸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한우농가의 불만의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경주해 온 것입니다.

셋째, 한우농가의 고령화 추세입니다. 농촌에서 신기술이 필요한 소득작물재배와 양돈·양계분야의 경우 청년층의 참여도가 높아져간 반면 한우농가들은 점차 고령화됨으로써 한우산업의 경쟁력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넷째, 지역축협의 조직기반이 한우농가 중심이었습니다. 지역축협 조합원의 60%이상이 한우농가입니다. 따라서 한우농가 중심의 조직화 움직임은 지역축협에 대한 상대적 도전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은 한우농가 조직화의 상황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한우협회는 창립 3년차에 접어들면서 한우농가 조직체의 틀을 갖춰가고 있으며, 한우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국한우협회 조직

전국한우협회는 창립 3년만에 중앙회 산하에 9개도지회, 120개지부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2001년말 현재 8,106여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말 목표 16,4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면에서는 아직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20개 지부 중 77개 지부만이 시군지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회원수 100명이상 지부는 아직까지 28개소 뿐입니다.

전국한우협회가 한우농가의 대변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회원수가 최소 20,000명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업규모의 한우농가가 한우협회 회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0명 정도의 회원이면 사육두수면에서는 전체의 50%이상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우농가의 단결력입니다. 현 회원수로도 전국한우협회는 상당한 대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생우 수입 저지 투쟁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적은 회원 수이었지만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쳤을 때 그 힘은 배가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의 회원 권익보호 활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국한우협회의 기능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가 주체인 비영리 사단법인체입니다. 따라서 한우농가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도를 높여나갈 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전국한우협회의기능은 ▲한우농가의 안정적 사육의지 고취 ▲소비자 중심의 생산·유통체제 구축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 확립에 있습니다.**

한우농가의 안정적 사육의지 고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우농가가 한우사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위해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단기, 중장기 정책요강을 수립하고 이를 관철시켜나가는데 최선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지도를 통해 한우농가의 주인의식을 확립시키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한우협회 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에 있어서도 유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우농가 중심의 단순 생산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생산으로의 의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질병예방 및 방역에서부터 도축 등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까지 생산자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한우고기의 브랜드화와 안정적 유통을 위한 두수확보 등 생산자가 함께 단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유통환경이 빠른 속도로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비자 중심의 유통기능 강화는 전국한우협회가 조직강화와 동시에 이뤄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국한우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한우산업의 유지 발전기능입니다. 한우는 우리 민족의 자산이며 전세계적인 고유 유전자원입니다. 한우농가는 한우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민족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의 단결을 통해 미국 호주 등 쇠고기 수출국들의 생우 수출 등 한우말살 의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한우산업을 민족산업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전국한우협회의 역할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도모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활동은 주로 대정부 정책협약과 회원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농림부와 협의, 1999년말 송아지생산안정제도와 다산장려금제도를 탄생시켜 한우 번식기반의 확립과 번식농가의 안정적 경영기틀을 확립했습니다. 이어 2000년에는 거세장려금제도를 도입해 한우 비육농가의 고급육 생산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한우고기 품질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한편 4000여 한우농가에 대한 한우고기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과 다산장려금을 현실에 맞춰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부의 중장기적 한우산업종합발전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한우번식기반 확립을 통한 한우산업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축협만이 추진하던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한우협회 지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우개량을 한우농가가 직접 책임지는 기본적인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원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은 한우고기 소비확대와 소값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999년말 농림부의 수입쇠고기 판매협조 문안 파동에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아낸데 이어, 2000년도에는 구제역발생에 따른 소비진작책 마련과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2001년 광우병 파동에 따른 소비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2002년초에는 SBS방송국의 잘먹고잘사는법 방영

에 따른 채식주의 열풍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국제축산물박람회와 축산물브랜드전을 통해 한우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개최를 통해 한우농가에게는 고품질 한우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는 한우고기 품질 우수성을 다시한번 확인시키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특히 한우고기 소비확대와 소 값 안정을 위해서는 한우자조금제도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축산자조금법을 제정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축산자조금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올해 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국내 쇠고기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국내 쇠고기 시장의 구조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에 대응해 한우농가가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2001년 쇠고기 완전 개방에 따른 생우 수입과 수입쇠고기 냉장육 수입물량의 급증 등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경쟁관계가 첨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분판매제 폐지로 인해 유통업체(정육점)의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동시판매가 30%를 넘어섬으로써 소비자의 직접적인 품질 비교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와 병행 한우두수 급감에 따른 한우고기 가격의 초강세로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중 최고품질 냉장육과의 가격 격차도 3배이상인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한우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우 도축두수는 55만두로, 쇠고기 시장에서의 한우고기 점유율이 30%대로 급감했습니다.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이 60%까지 육박하면서 미국 호주 등 쇠고기 수출국들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은 더욱 격렬해 지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출국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해 한우농가들은 아직도 현재의 단기적 이익에만 안주해 있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우 수입이라는 변수가 잠재되어 있어 한우농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UR 이후의 뉴라운드(도하라운드) 출범도 수입쇠고기 관세율 인하·한우보조금 감축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우농가에게는 근심을 드리우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같은 대내외적인 쇠고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등 쇠고기 수출국들의 「수입쇠고기 냉장육의 냉동유통 허용 요구」등 국내 쇠고기 유통 현실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에 대해 한우농가들의 논리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한우고기의 안전성과 품질 우수성을 입증받을 수 있도록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는데 한우농가의 온 힘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 전국 한우협회의 향후 과제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한우산업 전망에 대한 한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한우 번식기반 확대를 통한 한우산업의 발전적 기틀을 확립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를 통해 한우고기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우농가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WTO 체제의 자유무역시대에서는 한우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우농가 스스로의 지구력 마련과 이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한우산업정책은 한우농가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단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등의 활성화가 지역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의 질과 양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한우농가가 단결을 바탕으로 한목소리를 낼 때 지자체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생우수입의 재시도, 한우 사육두수의 급감, 한우고기 시장 점유율의 급락, 거세를 통한 한우고기 품질차별화 노력 위축 등 전국한우협회와 한우농가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한우농가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공동 노력해 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25만 한우농가가 전국한우협회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한우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한우농가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농가가 한목소리를 낼 때 한우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